

## 현대요트, 국제수준 럭셔리 요트 `아산42` 론칭

지난 1년 6개월간 25억원 투자해 개발  
850마력 엔진 탑재..최대 속도 35노트

2009.10.13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하이셀의 자회사인 현대요트가 13일 럭셔리 요트인 `아산42(ASAN42)`를 론칭했다.

지난 1년6개월간 25억원이 투입돼 개발된 `아산42`는 세계적인 요트 디자인 회사인 벤틀리의 디자인을 기초로 한국의 지형과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해 설계됐다.

850마력의 엔진을 탑재한 `아산42`의 최대속도는 35노트(시속 65km)며, 2층 형태의 플라이트데크 설치로 체감속도는 시속 160km이상이다. 최대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인테리어는 세계 최고의 명품빌트인 사양으로 독일 밀레(MIELE)와 이탈리아 아이소던(Isotherm)사의 마린그레이드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요트는 우선 법인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해 점차 VVIP 개인고객들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수판매에 주력한 후 수출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요트는 `아산42`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고, 올해 50억원, 내년 120억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

현대요트는 지난 75년 현대그룹의 자회사인 경일요트에 뿌리를 둔 현대라이프보트와 하이셀이 공동 설립한 회사다. 경일요트는 지난 90년까지 270여척의 요트를 생산해 수출한 바 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레이싱용 세일링 요트인 `아산 R26`을 개발했으며, 8월에는 미국의 게일(Gale International)사로부터 송도신도시 센트럴파크의 리버크루즈를 수주해 생산한 바 있다.

세계적인 요트회사인 페어라인(Fairline)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현대요트로 스카우트돼

아산42 제작에 처음부터 참여한 믹(Mick) 이사는 "아산42'는 국제적인 요트 제조기업들이 긴장할 만한 수준의 럭셔리 요트"라고 평가했다.

도순기 현대요트 대표이사는 "전 세계 해양레저용 장비시장 규모는 약 500억달러에 달한다"며 "현대요트는 세일링 요트와 리버크루즈, 마리나 건조능력을 입증한데 이어 국제수준의 럭셔리 요트 제조에도 성공해 해양레저 전문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모두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